



건강, 그 이상의 행복 실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서울 서부 및 경인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서북부의 대표 거점 병원이다. 1958년 성가소비녀회가 서울 미아리성당에 설립한 '성가의원'이 모태로, 올해 58년째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

대지 21,566.35㎡, 연면적 40,245.7㎡, 518개의 일반 병상, 55개 중환자 병상(신생아 중환자실 9병상 포함), 40개의 응급 병상을 보유하고 30개 진료과와 46개의 클리닉, 10개의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천성모병원은 경인 지역 최초 신장이식과 골수이식 성공,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선정,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장기이식 의료기관(각막) 지정, 최첨단 상호교환 정보시스템 nU(neuro-Ubiquitous) 구축, 아시아 최초 뇌혈관 내 스텐트 혈관 성형술 성공 등 부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2주기 인증 획득을 비롯하여 위암·간암·폐암·유방암 1등급, 관상동맥중재술, 고관절치환술 1등급 등 검증받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 부천성모병원 리모델링 조감도



회원 병원 소개

부천성모병원은 뇌졸중센터, 폐암전문센터, 당뇨병센터, 안센터 등 전문센터 중심의 특화 진료로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병원 내 알코올의존치료센터를 개설하여 가톨릭 영성을 실천하고 있으며, 진료과 간의 경계를 과감하게 허물고 환자 한 명을 관련 의사 여러 명이 함께 진료하는 완벽한 리얼타임 협진시스템을 2008년도부터 도입, 환자를 최우선시하는 병원 이념을 모든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 '메디컬협진센터'는 '협진'이란 개념을 시스템화시킨 국내 첫 사례로 8개과 내과 전문의의 협진을 통해 시간 절약과 진료비를 절감시킨,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환자 중심의 진료시스템이다. 현재 메디컬협진을 비롯하여 갑상선협진, 폐암협진, 관절협진, 두경부암협진, 소화기간담체협진, 혈뇨클리닉, 정형외과협진, 부인과암협진, 전립선암협진 등 총 10개의 협진팀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 최대이자 최고의 '뇌졸중센터'

부천성모병원 뇌졸중센터는 경기도를 넘어 국내 최대이자 최고라 자부할 수 있다. 11명의 신경외과 전문의와 2명의 신경과 전문의 등 총 13명이 365일 24시간 뇌혈관질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뇌혈관내수술 인증의가 4명으로 전국 최다 포진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뇌졸중진료기관평가' 5회 연속 최우수 1등급 등 뇌졸중 치료에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부천성모병원 뇌졸중센터는 뇌혈관질환에 있어 독보적인 업적을 쌓아 오고 있다. 1996년 뇌혈관 치료에만 쓰는 전용 조영 장비를 별도로 구비해 1998년 아시아 최초 '두개 내 스텐트성형술'을 성공했으며, 2012년 국내 최초 '뇌동맥류 파이프라인 스텐트 설치술' 성공, 2014년 2월 18일 다시 한 번 파이프라인 스텐트 설치술을 서울 4개 상급 종합병원(서울성모, 서울아산,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 외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등 뇌혈관질환에 있어서는 No.1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미세침습적 개두술 '키홀 서저리(keyhole surgery)'를 실시하여 뇌종양

환자의 희망봉이 되고 있다. 키홀 서저리는 열쇠 구멍(키홀)의 원리를 뇌수술에 적용한 것으로, 뇌동맥류와 일부 뇌종양(양성이면서 뇌 기저부 3cm 안팎 크기), 안면 경련, 소뇌 혈관 기형 등 각종 뇌 병변을 치료할 수 있는 술기다. 뇌수술에 있어 전통적 개두술의 경우 뇌 기저부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10cm 이상 크게 열어야 했는데, 키홀 서저리는 머리뼈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서도 뇌 속 병변을 크기와 무관하게 치료할 수 있다. 뇌 속은 해부학적 구조가 너무 복잡해 아직까지도 10년 안팎의 개두술수술 경험이 있는 베테랑 의사들만이 키홀 서저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을 정도로 고난도수술 중 하나다.

부천성모병원 뇌졸중센터 의료진은 최첨단 술기로 뇌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함은 물론, 해외 의료진 연수를 비롯하여 매년 10여 편의 관련 논문을 SCI급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명성을 날리고 있다.

리얼 협진 대표 명사 ‘폐암전문센터’

부천성모병원은 현재 10개의 협진팀이 운영 중인데 그중 특히 대내 외적으로 협진에 관한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는 센터가 ‘폐암전문센터’다. 부천성모병원 폐암전문센터는 2008년부터 쌓아 리얼(REAL) ‘협진’ 노하우를 하나로 결집하여 다른 어느 곳보다 앞선 2012년, 폐암 정복에 나섰다.

호흡기내과(권순석·김용현·박기훈 교수), 혈액종양내과(진종률·전상훈·이국진 교수), 흉부외과(김영두·전현우 교수), 영상의학과(정명희 교수), 핵의학과(김정호 교수), 병리과(김진아 교수), 방사선종양학과(윤세철·유미나 교수) 등 분야별 10년 이상 활약한 7개 진료과 교수와 관련 의료진이 매주 화요일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의무기록 등 문서 위주의 공유와 협의에 그치는 다른 병원의 명목상 협진이 아니다. 10여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브레인스토밍’으로 각 임상과의 노하우와 경험, 학술 정보를 총망라한 ‘환자별 맞춤치료’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2012년 3월 폐암전문센터 오픈 후 폐암수술 환자 수가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121%, 2013년에는 200%, 2014년에는 12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폐암 입원 환자 수 역시 2012년 846명, 2013년 983명, 2014년 1,06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협진 이후 폐암 환자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진 결과다.

폐암협진팀을 이끌고 있는 권순석 교수(호흡기내과/진료부원장)는 ‘폐암은 아직도 치료 방법 선별이 명확치 않아 연구가 진행 중인 암으로, 병기가 전체 4단계로 나뉘며 3단계까지는 다시 A·B 형태로 세분화(4기는 말기)되어 있어 병기에 따라 치료 방법과 예후가 각기 달라진다’면서 ‘진료과별 전문의의 의견 조율을 통한 팀워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치료는 물론 연구 성과도 내기 힘들다’고 전한다. 또한 ‘한 명의 폐암 환자를 위해 7개과 교수와 관련 의료진이 함께 모여 진단과 치료에 임하는 리얼협진시스템은 병원 수익보다 환자 치료를 우선하는 가톨릭병원의 진료 철학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폐암 치료는 스타 의사도 중요하지만 분야별 전문가





들의 역량이 하나로 모여야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폐암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최초 호흡기내과로 내원하여 조직검사를 포함한 CT, 기관지 내시경, PET/CT검사를 진행한다. 7개과(환자 상황에 따라 관련 과가 추가되기도 한다) 협진을 통해 검사 결과를 보며 수술·항암 치료·방사선 치료 등에 대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3~4개 유관 의료진이 환자 면담을 진행한다. 최소 7개 진료과가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폐암협진은 부천성모병원이 유일하다.

폐암전문센터를 이용한 환자들은 단시간 정확한 논스톱검사와 진단 후 폐암 완치를 위한 최적의 복합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갖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러 과를 배회하듯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을 큰 만족으로 꼽고 있다. 또한 환자의 전인적 치유를 위해 협진에 성직자가 동석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진 시 성직자의 동석은 환자와 보호자가 다수의 의료진을 한자리에서 대면할 때 느낄 수 있는 위압감과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진만을 대면했을 때보다 안정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협진에 대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메디컬협진센터를 이용한 환자 129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99%가 의사의 진료 과정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8%가 검사 과정 및 절차 설명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최첨단 암 치료법 선도
'뇌척추방사선수술센터'**

부천성모병원은 초정밀 맞춤 표적 치료가 가능한 APEX로 암을 치료하는 뇌척추방사선수술센터를 아시아 최초로 개설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항암제 치료와 함께 고난도 암 치료법의 하나다. 방사선수술은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할 수 없거나 뇌종양 절개수술 시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 절제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주면서 부작용은 줄이는 최첨단 암 치료법이다.

부천성모병원 뇌척추방사선수술센터에서는 칼 대신 종양을 괴사시킬 수 있는 용량의 방사선을 종양에 정밀하게 비취 병변을 죽임으로써 암을 치료한다. 일반적인 수술과 달리 피부를 절개하지 않아 출혈이 없고 전신마취나 시술 후 회복 기간이 짧다. 국내에서 APEX 장비를 사용해 수술하는 곳은 부천성모병원이 유일하다.

방사선수술은 뇌하수체 종양과 뇌수막종, 전이성 뇌종양, 재발 뇌종양, 뇌동·정맥 기형, 악성 경련, 파킨슨병, 척추질환 등의 치료에 적용된다. 퇴원 후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수술 경과 관찰을 위해 보통 2~4주째 검진하면 된다. 종양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수술 후 5~10년간 영상검사를 통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24시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 '응급의료센터'

부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는 365일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전문 외상치료팀, 전문 심장치료팀, 전문 뇌졸중치료팀과 함께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 최근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첨단 의료장비와 시설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부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의 대표 특징 중 하나는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에 최적화된 병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통한 병상 수 축소로 응급의료센터 내 병상 간 간격을 넓힘으로써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환자 간의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여, 이번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환에도 안전한 응급의료센터로 개편했다.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환자 분류소를 확장하였으며,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응급의료센터 입구에서부터 선별하여 별도 진료 프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응급의료센터 체류 시간을 대폭 축소했다.

환자 보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호자 대기실을 확장하였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당직 전문의 등 모든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여 한 번에 함께 문진하고 진찰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와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특히 응급 중증 환자만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중증 환자 구역을 분리, 확장했다.

더불어 응급환자의 진료 전문성을 살리고자 심폐 소생실과 응급수술실을 최신 설비로 재정비했으며, 감염 환자의 집중관리를 위해 격리실도 증설하였다. 환자감시장치, 인공호흡기, 심장제세동기 등 각종 의료기기도 확충했다.



All for Patient 새 병동 신축

설립 당시 일평균 1,500명, 350병상 규모로 건축됐던 부천성모병원은 해가 거듭될수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1994년 성가정관을

신설하고, 1999년 성요셉관을 준공, 2013년 지하주차장을 완공하는 등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자 꾸준히 병원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 나갔다. 그러나 진료 공간과 편의 공간 등에 대한 불편이 심화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 다시 새 병동 증축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새 병동 증축사업은 고객 중심에서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치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주안하여 준비에 들어갔다. 생명존중 의료와 영성 치료를 겸비한 전인 치료, 연구 병원의 역할을 위한 연구 시설 확충, 내원객의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 마련 등 부천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 2015년 9월



회원 병원 소개

착공하여 2018년 초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새 병동은 환자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설계가 이뤄졌다.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는 순간부터 퇴원하는 순간까지 쾌적한 의료환경하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했으며, 다양한 옥상 정원과 휴게 시설을 구성하여 편안함을 느낌으로써 치료 외에 정신적으로도 힐링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에 신경을 썼다. 또한 본관 리노베이션을 고려하여 새 병동과 본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에 신경을 썼다. 새 병동은 모든 층이 본관과 연결되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며, 각 층별로 치유환경이 특화된 병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향후 본관 리모델링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동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응급센터 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응급의료센터가 전방에 배치될 예정이다. 새 병동에 들어설 응급의료센터는 수술실, 중환자실, 병동과 수직 동선을 통하여 빠른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응급수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보다 신속히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진료 공간에 있어서도 새 병동은 층별로 협진실을 마련하고 협진에 참여하는 진료과를 한곳에 배치함으로써 부천성모병원의 강점인 협진 시스템을 더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과를 배치하여 암의 진단부터 치료, 재활 과정까지 연관된 진료과의 협진시스템은 물론 전담 코디네이터가 상주하여 통합관리하는 상담실 운영, 전용 항암 주사실 등 암 환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더불어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시경센터는 중환자실과 연결되며, 소화기센터와 같은 공간에 배치된다.



새 병동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국제병동도 신설된다. 국제병동은 탁 트인 전망과 개별적 공간 배치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의료서비스 외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를 위해 60여 년 가까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진해 온 부천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은 새 병동 신축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인 첨단 의료'라는
비전 실현을 목표로 '건강, 그 이상의 행복'을 이루려 다시 한 번 비상할 것이다.

✦ (우146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 1577-0675 / www.cmcbucheon.or.kr ✦